

2019년 1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 프로그램 명 : 바로보는TV 음부즈맨

- 편성시간

기존	본방송 매주 일 04:00~04:30(재방송 매주 월00:30~01:00)
변경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창숙	11/03	<뉴스리뷰> <뉴스10> <출발640>	
이재원	11/10	<뉴스13> <뉴스일번지> <출발640>	
이정훈	11/17	<뉴스리뷰> <출발640>	
김홍태	11/24	<뉴스리뷰>, <뉴스10>, <뉴스메이커>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정훈	대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5. 11. 26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19 11/3(일)	김창숙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2일에 진행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정부대표로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 중 관심의 초점은 단연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와의 단독회담이었습니다. 10월 24일 <뉴스리뷰>는 두 총리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의 최대 안건은 양국관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8월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양국은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서로에게 이로운 것이 없는 한일 관계 경색 상황에서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일왕의 즉위식 참석이 양국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를 보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보도량이 다소 적었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이 총리 방일 기간에 전문가 대담 등으로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했음. 보도량이 다소 적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으로 통해 시청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2019 11/10(일)	이재원	11월4일 [출발640]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여권 내 이낙연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빨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숨죽이고 있던 비주류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총리 등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며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연결된 흐름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게시판에 들어와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을 설명하는 해설 리포트나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음.

		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영상이 삽입되었습니다. 쇠신안 마련과 이 총리 역할론을 강조하는 건 초선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며, 종진 의원들도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이 대표의 강한 리더십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 총리 역할론에 힘을 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으로 종진 의원 둘의 의견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고, 이낙연 총리가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총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 역시 총선 역할론에 마음을 열어놓았다며 지난 달 28일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훗날 것이고, 제멋대로 (처신)해서 사달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영상을 전하며 문제는 여의도 복귀 타이밍에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 총리가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 총리 후임 지명자가 청문회를 넘어 국회 인준까지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여당의 총선 대비와 맞물린 당의 리더십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다만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를 위해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일어난 배경이나 이 총리가 이 대표와 다른 리더십 스타일 등을 향후 좀 더 분석 해설해준다면 좋겠습니다.	
2019 11/17(일)	이정훈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독도 헬기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과 프로듀스 101 투표	독도 헬기 사고와 관련해서는 동해 해경, 울릉도 현장, 대구 빈소 등에서

		<p>조작 사건에 대해 큰 비중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반면 두 사건 모두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도 헬기 사고에서는 상당한 인명피해도 있었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나 해당 오디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간과 돈이 낭비되었다는 점에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더 중요한 이유는 특정 언론사들이 이번 사건들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여부를는 별개로 이번 사고와 사건에 상당한 도덕적 책임은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이런 쟁점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도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뉴스 가치와 일반 시청자들의 뉴스 가치의 차이가 커지고 이러한 차이가 지속되게 되면 언론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실시간.다각적으로 구조 현황 등을 소개하려 노력했음. 다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쟁점 등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2019 11/24(일)</p>	<p>김홍태</p>	<p><뉴스일번지>에서는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상가에서 불이나 소방이 진화 작업 중임을 전하며, 화재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 했는데요, 기자는 불이 난 지 3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온 시간은 오후 1시 23분쯤이고, 소방은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큰 불길을 오후 3시 25분쯤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상가 안에 있던 시민 13명과 소방대원 1명이 연기를 마셔</p>	<p>화재 등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다양한 팩트를 확인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교통, 인명피해 등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나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대원 40살 주 모 씨와 41살 남성 서 모 씨는 3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추락해 허리 등을 다쳤지만, 소방은 비가 많이 내리던 상태라 사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진 것 같으며,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소방은 당초 불이 난 지하 1층에 4개 점포를 포함해 135개 점포가 입점해있다고 밝혔는데, 이후 브리핑에서 총 69개 점포이고 지하 1층에 8개 점포가 입점해있다고 정정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하 1층에 식당과 인테리어 자재 창고 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하 1층에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소방은 지하에 가득 찬 연기를 빼고 추가 인명피해 여부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으로, 목격자 말에 따르면 불은 지하 1층 인테리어 자재창고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은 어느 정도 진화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발령했던 비상대응단계 발령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화재현장연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들에서 이 상가 건물이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총 69개 점포이고 지하 1층에 8개 점포가 입점해있고,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1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화재 상황이 어떤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입니다. 화재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한 군데인 강남역이었고, 금요일 오후였기에 당시 도로 통제 상황 언급도 필요해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청 CCTV 정보를 확인하여 화재인근 도로의 교통 상황에 대하여 언급했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당시에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곳이 지은 지 좀</p>
--	--	--

	오래된 곳이기에 낙후되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가들에 대한 화재 대비 언급이 필요해보였습니다.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19. 11. 0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14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2일에 진행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정부대표로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 중 관심의 초점은 단연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와의 단독회담이었습니다. 10월 24일 <뉴스리뷰>는 두 총리의 회담소식을 전하면서, 회담의 최대 안건은 양국관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장에서 이 총리는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키려하자고 촉구했고, 아베 총리도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양국간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국가간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관계의 복원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지만, 양국이 대화에 의지를 보인 것은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리뷰>는 이어진 보도에서 이번 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논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면서도 국가 간 약속의 준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가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다고 맞받았는데, 일본 언론들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회담의 핵심이슈인 징용 배상 소송을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총리가 청구권협정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해 회담이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지적했고, 오미우리신 문은 일왕 즉위 의식 참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의례적으로 하는 회담의 일환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소개하며 이번 총리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5일 <뉴스리뷰>에서는 한일갈등의 최대쟁점인 강제징용 배상판결문제에 대한 한일간 접점 찾기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일본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만들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해법을 제안했지만, 일본측이 이를 거부하며 법적 배상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1안을 토대로 새로운 제안을 해나가면서 양쪽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외교 당국간 치열한 조율의 결과가 연내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8월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양국은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서로에게 이로운 것이 없는 한일 관계 경색 상황에서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일왕의 즉위식 참석이 양국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를 보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보도량이 다소 적었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회담 성과에서 양측의 반응을 단순히 전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는데, 회담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나 의견들을 좀더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10월 27일 <뉴스10>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와 같은 저성장이나 저성장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2% 성장률을 시수하겠다고 했지만, 남은 예산이 전체의 2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아닌 데도 경제 개발 이후 네 번째 1%대 성장률이 현실화한 건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저성장 흐름의 고착화 가능성인데,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과의 무역 갈등 같은 외적 요인에 신성장 동력 부재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내적 위기가 겹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에 재정 확대 기초는 맞지만, 단기 성장률 제고보다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돈을 풀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선 노동정책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8일 <출발640>에서는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행진이 11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에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재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든데,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나온 생산자물가 지수가 석 달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생산자물가는 한 달쯤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데, 소비자물가가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전망하는 지표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연말부터는 부진한 지표들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 반등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8일 <뉴스오늘>에서도 수출 부진 장기화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실적이 증권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를 뺐은 39개 기업 중 11곳이 기대치에 10% 이상 미달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낮은 기대치보단 선방했지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넘게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IT 제품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들어 9월까지 22.3%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세대 이동통신 수요 증가와 스마트폰 탑재 고용량화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수출 전반기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은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선전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안 변수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수출 구조

혁신을 위해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남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인터뷰, 전문가 토론, 의미있는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태도를 견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5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환자나 간호사를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어딘가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독 의사에게 관대한 법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는데, 환자가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보도한 지난 뉴스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최근 법원이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성폭력특례법상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진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불법촬영 사건 10건 중 9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혹은 걸렸다 하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몰카 범죄자 2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설령 실형을 받아도 의사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는 의사 면허 박탈 기준에 성범죄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실과 간호사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사는 2012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 당시 발견된 불법 촬영물만 2만여건인데, 문제는 지난해 이 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영상이 추가로 유포됐고 피해자가 늘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사는 병원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 적절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불법은 아니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의료업계에 계속 종사하는 현실이 이대로 관찮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 보도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을 발굴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19. 11. 1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1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조국 사태 이후 총선에 대비하는 정치권의 흐름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또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 현장 상황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11월3일 [뉴스13]에 방송된 [여의도풍향계]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분열 양상을 전하고 그 의미를 해설해주었습니다. 먼저, 지성민 기자는 조국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뒤늦은 사과 소식을 종합해주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며 국론이 둘로 갈라선 결과로 이어진 조국 사태에 대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첫 사과를 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16일 만에 나온 너무 늦은 유감 표명이었고, 내용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사과할 계획이 없던 이 대표가 돌아선 데는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소신 발언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9월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가 편가르기 한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부터 경보음이 이미 감지되었다고 해설했습니다. 민심의 파

고는 갈수록 올라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입을 다물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국 지키기에 묵묵히 앞장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끝내 낙마하자 상황은 급변했고,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정국에서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의 근거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 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장면을 삽입했습니다. 또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물, 김해영 최고위원의 사과 발언 영상 등을 전하며 민주당 내 소신 발언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조국 정국에서 "많은 의원이 괴로웠고, 지옥을 맛봤다"고 성토했던 조용천 의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해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용진 의원 등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낙마와 반사이익으로 오른 지지율에 고무된 지도부가 내홍의 단초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고, 조국 전 장관 공세에 앞장선 의원들에게 표창장까지 수여하자,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조국 TF 표창장 시상식을 한 것은 너무 가벼운 행동이었다"고 쓴소리를 했고, 신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일련의 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황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1차 외부인사 영입 대상 중 한 명이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었던 터라 최고위원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또, 보수통합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손을 잡을지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생각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최근 양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해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의 흐름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각 당 의원들의 발언을 날짜와 장소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 그래픽으로 제시하거나 영상으로 전달하여 정확성과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내 리더십 갈등은 그 배경도, 양상도 서로 다르지만, 내년 4.15 총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도부와 차별화한 목소리를 내야 표심을 얻는데 효과적인 정치 현실이 맥락에 깔려 있다고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리더십 균열에 대한 내용을 팩트와 함께 제시하여 돋보였습니다. 11월4일 [출발640]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여권 내 이낙연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빨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숨죽이고 있던 비주류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총리 등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며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연결된 흐름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게시판에 들어와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영상이 삽입되었습니다. 쇠신안 마련과 이 총리 역할론을 강조하는 건 초선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며, 중진 의원들도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이 대표의 강한 리더십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 총리 역할론에 힘을 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으로 중진 의원 둘의 의견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고, 이낙연 총리가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총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 역시 총선 역할론에 마음을 열어놓았다며 지난달 28일 "논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훗날 것이고, 제멋대로 (처신)

해서 사달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영상을 전하며 문제는 여의도 복귀 타이밍에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 총리가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 총리 후임 지명자가 청문회를 넘어 국회 인준까지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라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여당의 총선 대비와 맞물린 당의 리더십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다만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를 위해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일어난 배경이나 이 총리가 이 대표와 다른 리더십 스타일 등을 향후 좀 더 분석 해설해준다면 좋겠습니다. 11월3일 [뉴스일번지]에서는 독도 소방헬기 추락과 관련한 브리핑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색 구조계장이 해군함정, 관공선, 어선 등 해상 수색에 동원한 함정, 해경 항공기, 소방 항공기 등 항공기 등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수중수색이 일어난 시각과 과정, 실종자 현황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또, 기후 상황 때문에 중단된 수중수색은 기상이 호전되면 해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중수색이 이뤄진 당일 브리핑 현장을 그대로 보도해 속보성과 현장성이 있는 뉴스전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양경찰청 담당자와 119 특수구조대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도 모두 그대로 전해주어 투명성도 확보된 보도였습니다. [출발640]은 10월30일 태국 푸켓에서 한국인 사망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유족들이 현지 여행 업체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초등생 자녀와 함께 태국 푸켓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 관광을 하다 체험 도중 4m 물속에 현지인 강사와 함께 익사하는 참변을 겪었을 당시 현장을 목격한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체험 도중 갑작스레 수면으로 올라가자는 신호를 한국인이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강사와 한국인은 모두 산소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의 산소호흡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올라오려 시도했다며, 산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지 언론이 사망 원인을 ‘쇼크’라고 보도하자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사와 한국인을 물으로 끌어낸 직원의 조치였다며, 현지 관계자들은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목격자들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관광상품을 신청한 한국 여행사 블로그에는 ‘여행자 상해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이 보험은 지난 8월 만료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은 이같은 관광 상품이 “시한폭탄인 것 같다”며 “장비·복장 착용 등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현지 경찰의 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여행 증가와 함께 사고 소식이 잇따르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보도라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같은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여행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11월3일 [일요와이드]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영상을 공유해온 세계 최대 사이트를 추적했더니 운영자, 이용자의 70%가 한국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고,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법부 처벌은 안일하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추적이 어려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경로로 이용되는 일명 다크웹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최근 국제 공조 수사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추적해 310명을 검거해 모두 220여명의 한국인을 검거했지만 정작 박자를 맞춰야 할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수출입은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로 보고 있지만 실제 사법부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

니다. 검찰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로 입건된 599명 중 6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나마 기소된 100여명 중 절반도 약식기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공분을 산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손 모 씨 역시 불우한 어린 시절이 법원 판단에서 오히려 유리한 감형 사유로 작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전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구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19. 11. 17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1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19년 대입수학능력 시험이 임박한 가운데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 미, 일간의 입장차가 뚜렷해진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대입제도에 관련한 교육부의 최근 조사 결과와 특목고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1월 5일 <뉴스리뷰>에서는 2007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부의 학생종합전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자사고와 특목고 우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집중 살펴본 결과 과학고와 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은 일반고의 3배 가까이 높고 일반고 출신 합격자에 비해 과학고의 경우 내신 등급이 낮아도 합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입시제도에서 고교등급제가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배점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종이 지난 10년간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우회적으로 담아낸 꿈수들이 적발됐고 위반과 자소서 표절에 대학들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13개 대학 실태조사 결과,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사례가 366건 적발됐고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를 검증하지 않거나 교사 추천서에 기재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가 없는 대학이 대다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평가 참고를 위해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은 졸업생들의 진학률까지 확인 가능하거나, 어학성적과 소논문 등 금지 스펙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는데 고교별 가점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편법 사례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7일 <뉴스리뷰>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 폐지정책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이번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 조치이자 초법적인 교육 폭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공정성을 가장한 퇴행적 조치라며 지역에 따른 또 다른 서열화만 만들 뿐이라고 맹비난하면서 폐지시기를 2025년으로 정한 것은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한 교육 폭거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학교와 학부모측은 정책 일관성을 믿고 학교에 투자해왔던 만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항거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큰 갈등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현 대입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교 서열화에 대한 조사결과와 특목고 폐지에 관련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을 보도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비롯된

대입 제도에 대한 논쟁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교육부의 조사결과와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특목고 폐지 정책은 현 대입제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문제처럼 치열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는 이슈에 대해서는 대개의 언론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정립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 대입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만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뉴스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나 염려가 향하는 지점이 대입 제도의 부적절한 운영이나 관리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현 대입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언론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 드러내는 불만족을 그대로 뉴스에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대중의 불만족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독도 인근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 추락한 헬기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 및 시신 인양 작업 상황과 엠넷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서 101의 투표시스템의 공정성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1월 8일 <출발 640>에서는 독도 헬기 사고가 발생한 지 9일째 수색당국의 사고해역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까지 수색 상황은 사고 헬기 동체를 찾았고 대원 2명과 부상 선원 1명 등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는데 여전히 나머지 4명의 실종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악화로 수중 수색이 중단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마지막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독도 헬기 사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당국은 함선 8척과 항공기 3척, 조명탄 270발 등 가용한 장비를 총동원해 해상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5일 <뉴스리뷰>에서는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했던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번 사태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오디션 프로그램 명성 유지의 핵심인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시스템의 작동 여부인데 엠넷이 지향한 '국민 프로듀서'가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면서 제작진은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작사와 아이돌 기획사 등의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독도 헬기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과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에 대해 큰 비중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반면 두 사건 모두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도 헬기 사고에서는 상당한 인명피해도 있었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나 해당 오디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간과 돈이 낭비되었다는 점에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더 중요한 이유는 특정 언론사들이 이번 사건들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와 사건에 상당한 도덕적 책임은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이런 쟁점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도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뉴스 가치와 일반 시청자들의 뉴스 가치의 차이가 커지고 이러한 차이가 지속되게 되면 언론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중료를 앞두고 있는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철회 압박과 한미 방위비 인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11월 7일 <뉴스리뷰>에서는 지난 5일 미 국무부의 외교, 안보, 경제 담당 고위 인사 3인방의 이례적 방한은 지소미아, 방위비 등 민감한 현안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출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하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우리 측 정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다시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 비용을 꺼내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비용엔 전략자산 전개, 미군의 순환배치에 드는 비용 등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명목의 비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협정 자체를 손보거나, 주한미군 문제로까지 연계할 수 있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한미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상 언젠는 주한미군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지소미아 효력 중료를 앞두고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 측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의 연계 관련성에 대해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 미, 일 간 공조 체계 붕괴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외교 정책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사안을 보다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 지식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취재 내용보다는 미국 측 인사들의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중심으로 보도를 진행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언론 플레이'도 각국의 입장이나 전략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언론플레이'처럼 구체적인 자료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서 보도하거나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설명 없이 사건 그 자체로만 다루는 방식은 일반 시청자들이 복잡한 외교 사안을 이해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려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19. 11. 24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41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28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는 2만원 넘게, 2년 전과 비교하면 6만원 넘게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경찰이 화성 8차 살인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렸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는 2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중임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진흥상가에서 불이나 시민과 소방관 등 17명이 다친 것을 보도했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지하 1층 인테리어 자재창고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리뷰>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진흥상가에서 불이나 시민과 소방관 등 17명이 다쳤으며,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오후 1시 23분쯤 서초동 진흥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하였고,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시민 16명이 다치고, 구조 작업 중이던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일번지>에서는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상가에서 불이나 소방이 진화 작업 중임을 전하며, 화재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 했는데요, 기자는 불이 난 지 3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온 시간은 오후 1시 23분쯤이고, 소방은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큰 불길을 오후 3시 25분쯤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상가 안에 있던 시민 13명과 소방대원 1명이 연기를 마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대원 40살 주 모 씨와 41살 남성 서 모 씨는 3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추락해 허리 등을 다쳤지만, 소방은 비가 많이 내리던 상태라 사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진 것 같으며,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소방은 당초 불이 난 지하 1층에 4개 점포를 포함해 135개 점포가 입점해있다고 밝혔는데, 이후 브리핑에서 총 69개 점포이고 지하 1층에 8개 점포가 입점해있다고 정정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하 1층에 식당과 인테리어 자재 창고 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하 1층에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소방은 지하에 가득 찬 연기를 빼고 추가 인명피해 여부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으로, 목격자 말에 따르면 불은 지하 1층 인테리어 자재창고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은 어느 정도 진화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발령했던 비상대응단계 발령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화재현장연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들에서 이 상가 건물이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총 69개 점포이고 지하 1층에 8개 점포가 입점해있고, 불은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1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화재 상황이 어떤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입니다. 화재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한 군데인 강남역이었고, 금요일 오후였기에 당시 도로 통제 상황 언급도 필요해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청 CCTV 정보를 확인하여 화재인근 도로의 교통 상황에 대하여 언급했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당시에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곳이 지은 지 좀 오래된 곳이기에 낙후되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가들에 대한 화재 대비 언급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요즘 물가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비용에 대하여 짚어 본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10>에서는 입동도 지나고 이제 김치 담글 시기인데 올해 김장 비용은 얼마나 들지,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올해 김장용 배추와 무 농사는 흉년으로, 유난히 잦았던 태풍과 가을장마가 작황 부진으로 이어진 탓으로 결국 김장 비용 부담이 늘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28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는 2만원 넘게, 2년 전과 비교하면 6만원 넘게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양념 채소인 김마늘과 고춧가루, 대파, 생강은 작황 호조로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배추는 작년보다 35% 넘게, 무는 50% 가까이 값이 치솟았기 때문으로, 해마다 비용이 늘어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준비하면 대형마트에 비해 1만원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비축해둔 배추 7,000t, 무 4,000t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어 곧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28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는 2만원 넘게, 2년 전과 비교하면 6만원 넘게 올랐다는데요, 이렇게 김장 비용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 나름 자세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위 보도는 시청자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시의 적절하게 전달해 주어서 좋았는데요,

시청자들이 자꾸 오르는 물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더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언급이 있어서, 요즘 더욱 어려운 전통 시장의 활성화에도 조금은 힘을 실어준 보도였습니다. 지난 16일 <뉴스14>에서는 경찰이 발생한 지 30년도 넘는 화성 8차 살인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사실상 특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실·강압수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짚어주었습니다. 지난 1988년 9월 13살 박 모 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윤모씨는 20년이나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이춘재의 입이 열린 후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이 내린 판단의 과정에 수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자신이 박 모 양을 살해했다고 밝힌 이춘재의 최근 자백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 씨의 과거 자백은 진범을 특정할 결정적 열쇠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침입경위, 수법 등에 대해 달리 말했는데요, 윤 씨가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심청구인 윤 모 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가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걷지도 못하는데 재심 청구인의 자백내용에 따르면 그날 밤 몇 km를 걸어야 했고 담을 넘어 범행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반면 이춘재는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범행수법에 대한 진술도 엇갈리는데요, 윤 씨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춘재는 양발을 손에 착وق한 상태로 목을 졸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결과 '상처는 맨손이 아닌, 천에 의한 쓸림 현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훼손된 진실의 실체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 주목된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5일 <뉴스메이커>에서도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춘재는 윤 씨가 신청한 재심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 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사실상 결론 내렸는데요, 1988년, 집에서 잠을 자던 박 모 양이 성폭행 후 살해당했는데 이춘재가 박 양의 신체특징과 범행수법 등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춘재는 집 내부 구조와 시신의 위치, 특히 범행 후 박 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까지도 자세하게 진술했으며, 경찰은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윤 모 씨의 자백에 대해서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윤 씨의 자필진술서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했고, 억울하다며 지난 13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윤 모 씨가 "저는 무죄입니다.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데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뉴스에 삽입했습니다. 1988년 당시 윤 씨를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일관되게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춘재는 윤 씨 재심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나 대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화성 연쇄살인파 관련하여, 경찰이 8차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내린 15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 측은 당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는데요, 이들 조서에 대하여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실제 윤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서에 범행 관련한 일시 장

소 수법 등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 스스로 내린 판단에 비추어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씨는 20년의 옥살이와 10년의 심적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윤 씨가 세 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왔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국집에서 일했으며, 12살 때부터는 경운기 수리 센터에서 기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함께 보도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이 더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19년 11월 03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19년 11월 10일 04시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19년 11월 17일 04시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19년 11월 24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